



차렷했던 한 해가 조금씩 저문다. 덩달아 자연도 푸른 옷을 벗어 던지고 겨울 실속으로 조용히 들어갈 준비를 서두른다. 이럴즈음 우리네 삶도 일상을 벗어나 꾸밈도, 번민했던 그 무엇도 없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여행을 떠나 보는게 어떨까? 전국 최고의 '오지' 영양군. 누군가는 영양을 '특별천연구역'이라 한다. 영양의 어딜 가더라도 오염되지 않고, 사람의 개발 손길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Yeongyang International Dark-Sky Park

자작나무 숲·은하수 별무리...자연이 주는 침 속으로

영양

- 검마산 깊은 산자락에
- 축구장 40여개 면적
- 천연 자작나무 숲단지
- 국제밤하늘보호공원
- 눈으로 보는 별빛
- '5G(오지) 캠핑' 기대
- 검소함 깃든 두들마을
- 장계향 문화체험관서
- '음식디미방' 조리법 재현

◇사람의 개발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자작나무숲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검마산 깊은 산자락이 운룡새하얀 자작나무들로 빼곡하다. 이 곳은 내륙지방에서는 보기드문 축구장 40여개의 면적보다 넓은 규모의 자작나무 숲 단지다.

이 곳은 지난 1993년도에 약 30ha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생태경관이 매우 우수해 올 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작나무숲길 2km를 설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자작나무 숲의 대표적인 인제 자작나무 숲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줄기 굵기가 60cm를 넘는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없어 자연 고스란히 지켜져 오고 있다.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자작나무 숲은 인근 수비 국제밤하늘보호공원과 울진 금강송 생태경영림, 봉화 석포 분천역과 산타마을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휴양지로 가꾸진다.

자작나무 숲이 있는 죽파리는 영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하루 3회 버스가 운행될 정도로 적막강산 오지다. 검마산, 일월산, 울진의 백암산 등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정착해 마을을 개척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수십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벗어나 오롯이 자연 그대로 자라난 자작나무들은 보얀 속살같은 하얀 껍질을 고스란히 간직해 눈이 시릴 정도다. 숲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지친 심신의 피로를 그대로 풀어낼 만하다.

◇몽골 초원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북 영양 수비 수하마을은 오지중에 오지다. 골짜기 깊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세상 끝 마지막 남은 땅인듯 싶은 정도다. 이 곳을 요즘들어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다. 인공 불빛과 현대화 속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밤하늘과 은하수 별무리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가 이 일대 3.9km를 2015년 10월 '보호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곳 오무 마을에서 밤 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에서

별이 얼굴로 쏟아 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된다. 특히나, 달빛마저 숨어든 그믐밤에도 이 곳은 그리 캄캄하지않은 않다.

어릴적 과학책이나, 천체 망원경으로 경험했던 밤하늘의 그 솔한 별들과 우주가 고스란히 밤하늘에 장관으로 펼쳐져 깊은 산골짜기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협회의 슬로건처럼 이 곳에서는 '별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말이 딱 맞는 곳이다.

인공의 빛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 곳은 일찌감치 반딧불이 생태공원으로도 지정, 보호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맹그루브숲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의 장관을 이 곳에서도 볼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빨라진다.

캠핑족이라면 이 곳 주변에 들어선 '영양수비별빛캠핑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요즘에는 이 곳에서 '5G(오지) 캠핑'이 마련되고 있다. 은하수투어와 목공체험, 캠핑라이프, 캠핑요리대회 등 잊지 못할 오지 캠핑을 체험할 수 있다.

◇'구빈(求貧) 위한 참나무, 수백년 마을 버팀목으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은 검소함이 깃들어 있다. 대의를 굳게 가졌던 선비의 청빈한 삶이 전해져 오기도 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영양 땅에 은둔했던 재령 이 씨 문중의 석계 이시명과 그의 부인 안동 장씨 계향.

이들은 '가학(家學)'과 '구빈(救貧)하는 삶으로 대명절의 뜻을 꿰으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고 있다.

두들마을 언덕 위에는 아름답디 참나무(도토리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다. 석계 선생 부부가 1631년 이곳에 다 터를 잡으면서 심었던 나무들이다. 390여년이 흐른 세월에도 깨끗하게 버티고 선 나무가 50여 그루에 이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궁핍해진 사람들의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위해서였다. 또, 변변하지 못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석계 선생과 아들 4남의 경학이 소문나면서 이들의 초막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도토리로 끓인 죽으로 예를 다했다. 도토리죽 공평

한 인근 수백여 명도 구휼했다.

지금도 언덕 위에 세월만큼 많은 가지를 뻗고 있는 아름답디 참나무에는 석계 선생과 정부인 안동 장 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교훈이 그대로 전해온다.

장계향 선생은 부친인 장흥효의 영향으로 사·서·화에 능했다. 19살 때 석계의 계실(繼室·둘째 부인)로 시집 온 장 선생은 전실인 김 씨 부인의 자녀를 포함해 7남 3녀를 훌륭히 키워냈다. 임금이들을 '7현자'로 불리게 했으며 남편과 네 아들, 두 명의 손자가 나라이 부름을 받은 '7산림'으로 불리도록 했다.

장 선생은 한국 전통음식의 보고(寶庫)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했다. 음식디미방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년전에 쓰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다. 딸들을 위해 지은 조리서인 것이다.

두들마을에는 몇 해전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이 들어섰다. 이 곳은 장계향 선생을 현대로 불러오는 다양한 선양, 교육 사업이 진행된다. 현존 최고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조리법을 재현해 전통음식 조리, 전통주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실습실이 있다.

또 주변 녹음과 어우러져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전통한옥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다. 부대시설로 다도체험, 전통혼례, 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너른 마당과 주차시설이 조성됐다.

장계향 문화체험 교육원 관계자는 "전국 공무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시설을 탐방하는 상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기관단체 워크숍, 세미나 유치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매일신문 임재진 기자 jinee@



- 1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일대는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마치 몽골 초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별빛이 쏟아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2 자작나무-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는 축구장 40여개보다 넓은 규모의 자작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 이 곳은 최근 산림청과 영양군이 생태휴양지로 가꾼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3 영양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영양군 제공>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